

경제 활력 제고 · 체질 개선

전북도, 올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대응 보고회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신산업 혁신기반 확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창출

전북도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7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전북도는 6일 이원택 정무부지사 주
재로 지역투자 촉진, 수출 총력 지원,
신산업 혁신성장, 서비스산업 본격화
추진 등 경제 각 분야에 대한 중앙부
처 동향 파악과 관계기관 협력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회를 가졌
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변화
된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성 강화
추진을 위한 29개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
도 등 9개 과제를 발굴해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 생활SOC 사업에 대한
신속 집행으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
화하고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
편으로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
총력 지원강화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



도 무형문화재 보유 '인정'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전북도청 4층 접견실에서 2019년 전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승용 익산성당포구농악보존회 회장, 조용안 판소리장단(도 무형 제9호), 송하진 도지사, 김한일 아장(도 무형 제65호), 박계호 선자장(도 무형 제10호))

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
획이다.

또한, 체질개선과 미래대비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13개 과제
를 발굴, 혁신성장 가속화 및 성장동
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산업 혁신기
반 확충과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창출
하고 유망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할 계획
이다.

아울러, 포용성 강화를 위한 지역주
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 7개
과제를 발굴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
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지원을 강

화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을 추가발굴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사
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제로페이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기
업에 대한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 나
갈 계획이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 우리도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오는 발표한 과제들을 도
민을 위한 정책으로 더욱 새롭게 진화
시키고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 공모사
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별개로 최근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한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확대되
지 않도록 일본 수출규제 기업피해 신
고센터 설치와,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
해 피해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소재 부품 산업의 자립화를 위
한 연구개발 강화,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추진, 해외마케팅 확대 등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 할 계획이
며, 농업, 관광 분야까지 그 피해가 확
대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
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사회공헌사업에 '전주한지' 이용

시, 한지 보존 · 활성화 협약 체결

전주시와 시민사회단체(NGO)가 취
약계층의 집수리사업에 장판, 벽지 등
을 전주한지로 사용키로 했다.

시는 6일 부시장실에서 김양원 부시
장과 문정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

북지역본부장, 최동호 전주한지사업협
동조합 상무이사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한지 보존과 활성
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공헌활동 시 천년
이 가도 변하지 않는 전주한지를 이용

함으로써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
고 협력기관간 공동발전, 사회적 가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
다.

이들 기관·단체의 협약 체결에 따
라 전주한지를 이용한 생산품의 활용
과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
으로 보인다.

시는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
주의 전통한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

관·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전
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양원 전주시부시장은 "이번 협약
을 계기로 전주한지를 애용하는 기관
과 단체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전주한지장인들에게
전주한지의 자부심을 지켜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 3학년생부터 단계적 시행

도교육청, 내년에 2~3학년 2021년 전학년으로 확대
입학금 · 수업료 학교장이 정하는 자사고 등은 제외
올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추경 통해 이미 확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19년 2학기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등
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
교 2·3학년, 2021년 고교 전학년으
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
다.

지원 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고등
학교다. 다만, 입학금 · 수업료를 학
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
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
비이며, 내년부터는 입학금과 교과
서비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1만8,683명에 128억
원, 내년(2020년) 고 2·3학년 3만
3,263명에 460억원, 2021년 고교 전
학년 4만7,675명에 6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예산은 국가와 도교육청이 각
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하게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이미 확
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
육이 완성되면 불평등한 교육비 부
담구조를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태풍 프란시스코 한반도 북상

전북도, 24시간 상황관리 나서

공사장 안전관리 ·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 통제

전북도는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반도로 북상하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 6일 밤부터 강풍 예비특보
가 발효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적극 대
응한다.

태풍이 약화되어 전북지역의 예비
특보가 해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방
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강풍과 호우를 동반하고 있고, 도내
에 많게는 6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
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이에 태풍진로를 예의 주시하며
호우에 대비한 배수펌프 가동준비는
물론, 강풍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작물시설 및 축사 등에 대한 사전
결박과 꼼꼼한 안전조치가 필요하
다.

또한 건설중인 공사장 안전관리,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 등 인
명피해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께
서도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강풍과 호우
에 대비하여 되도록 하천 ·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과 외출을 자제하
고,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은 안전
한 곳으로 사전대피하고, 저지대는
침수에 대비해 배수로를 점검하는
등 호우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할 것"
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전북연구원 "호남권 출판산업 클러스터 조성하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